

‘한강 노벨상’ 계기 ‘5·18 헌법전문 수록’ 속도 낸다

오월배경 ‘소년이 온다’...세계적 가치
광주시·정치권 ‘개헌추진본부’ 구성
원포인트 개헌·조사위 연장 추진도
시도의장협 성명·범시민 운동 전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힘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17일 광주시와 국회,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지역에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작품이자 5·18을 다룬 2014년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두고 스웨덴 한림원에서는 그리스 고전이자 소포클레스 희곡인 ‘안티고네’와 견주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18을 배경으로, 군사정권의 잔혹한 탄압을 겪은 한 소년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

기를 통해, 국가 폭력의 비극을 문학적으로 재현했다.

이 작품은 역사적 폭력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고통을 깊이 탐구하고 폭력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의 인류애와 연대를 주제로 삼고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은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연대와 희망을 찾고자 함임을 일깨어 준다. 이는 노벨문학상이 지향하는 인간의 본질, 폭력에 대한 저항, 인류애, 연대, 평화를 모두 담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취지아래 지지부진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광주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추진해 오월정신이 세계로 확산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되는 길을 닦겠다”고 말했다.



2024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골든벨

‘2024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골든벨’이 17일 여수 무선중학교 체육관에서 전남일보·전일엔컬스가 주최·주관하고 전남도·전남도교육청의 후원으로 열린 가운데 3학년 학생들이 퀴즈의 답을 들어보이고 있다.▶관련기사 4면 나건호 기자

강 시장은 “개헌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이야말로 헌법전문 수록을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정치권

과 함께 ‘개헌추진본부’ 구성을 준비하고 오월정신을 헌법에 기록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면에 계속 노병하·정성현 기자

국힘·민주, 텃밭서 승리... “이변은 없었다”

영광군수 장세일·곡성군수 조상래
이재명·한동훈 대표, 리더십 공고
혁신당, 호남 교두보 확보에 실패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텃밭에서 승리하면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군소 야당의 반란’을 모색했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고배를 마시면서 호남 교두보 확보에 실패했다. 그러나 성적표를 떠나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호남에서 군소 정당이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만든 것만으로도 호남 정치 지형에 변화를 준 것이라

는 해석도 나온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결과에 따르면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영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혁신당과 진보당이 약진하면서 호남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3파전을 펼친 끝에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단일후보’를 표방한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텃밭을 수성

하면서 양당 대표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을 사수해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대표도 당정 지지를 동반 하락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향후 당내 입지는 물론 당정 관계에서도 발언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결국 호남은 ‘돌돌민(돌고돌아 민주당)’으로, 전국적 이슈에 비해 결과는 뻔했던 것 같다. 막판 장현 혁신당 후보의 약세로 민주 진영이 장세일 후보에 몰린

10·16 재보선 최종 득표율		※ ★는 당선인, 중앙선거위 기호순	
영광군수		서울시교육감	
장세일(민) ★	41.08%(1만2951표)	정근식 ★	50.24%(96만3876표)
장 현(혁)	26.56%(8373표)	조전혁	45.93%(88만1228표)
이석해(진)	30.72%(9683표)	윤호상	3.81%(7만3148표)
오기원(무)	1.62%(512표)	인천 강화군수	
곡성군수		한연희(민)	42.12%(1만5351표)
조상래(민) ★	55.26%(8706표)	박용철(국) ★	50.97%(1만8576표)
최봉의(국)	3.48%(549표)	김병연(무)	0.64%(235표)
박용두(혁)	35.85%(5648표)	안상수(무)	6.25%(2280표)
이성로(무)	5.39%(850표)	부산 금정구청장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혁=조국혁신당, 진=진보당, 무=무소속		김경지(민)	38.96%(3만4887표)
		윤일현(국) ★	61.03%(5만4650표)

것 같다”며 “민주당에게 한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 만큼 ‘국민 경종(警鐘)’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남은 2년 동안의 성과에 따라 차후 지선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역과 한 약속을 지키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서울=김선욱·오지현 기자

SI 발생 예방을 위한 가금농가 필수 방역수칙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금지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 통제와 소독

전라남도